



IBRD 차관 농수산물저장·가공 등 지원

— 농개공, 83년까지 5천만 달러 전대 —

농어촌 개발공사는 IBRD 차관 자금을 재원으로한 금년도 농축산물 저장 가공산업 육성지원 대상 업체로서 저장분야 6개사, 식품가공 분야 9개사, 비식품 분야 2개사 등 17개 업체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재무구조 심사 작업에 들어 갔다.

농어촌 개발 공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83년 까지 농축수산물 저장 및 식품가공업 육성을 위해 IBRD로 부터 차관 5천만 달러를 도입, 희망 업체에 대하여 줄 계획 아래 1차로 올 하반기에는 차관자금 7백 50만 달러, 정부 지원액 11억 6천 7백만원 등 74억 3천 5백만원을 융자 지원 하기로 확정하고 전대 희망 업체를 모집한 결과, 저장·냉동 분야에서 6개사, 식품가공 9개사, 비식품 2개 등 모두 17개사에서 1백 16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개공은 IBRD차관 전대를 희망, 신청해 온 이들 17개 업체에 대한 자기자금 부담 능력 사업 계획의 타당성, 투자 효과 등 심사를 조속히 끝내고 늦어도 12월 부터는 자금을 지원해 줄 방침인데 사업 타당성과 투자 효과가 있을 경우 금년 하반기 중 자금집행 계획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원계획(차관자금 1천 5백만 달러)에 포함시켜 전대 실수업체로 인단 선정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 하반기 지급지원 계획을 부문별로 보면 △ 저장·냉동: 차관 자금 17억 8천 5백만원·정부지원 4억 6천 2백만원·실수요자 부담 7억 2천만원 △ 식품가공: 차관자금 20억 2백만원·정부지원 5억 3천 9백만원·실수요자 부담 8억 2천 5백만원 △ 비식품 분야(사료등): 차관자금 6억 7천 7백만원·정부지원 1억 6천만원·실수요자 부담 2억 6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 정부는 농축산물 저장가공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농수산부, 하천 점용료 농지세 내려

- 유휴 농경지 활용 촉진 위해 -

농수산부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농지세 부담을 각각 인하, 유휴 농경지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높이고 식량증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를 수도작등 감류 농지세 대상에서 대해서는 현행 감류농지세 표준액의 1 백분의 20에서 1 백분의 15로, 채소등 을류 농지세 대상에서는 대해서는

인근 유사지 을류 농지세 과세표준액의 1 백분의 20에서 인근유사지 시가표준액의 1 백분의 6으로 각각 인하 조정했다.

농수산부는 이와 아울러 신규개간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농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이미 경작중인 하천부지에 대해서도 인근 유사지의 과세등급 이하로 감면토록 하여 하천부지 이용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전(田) 작물 작부 체계 개선 강구

- 농수산부, 밀·콩·옥수수 자급도 제고 위해 -

농수산부는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외시 되어 왔던 보리·밀·콩·옥수수 등 전 작물의 증산 시책을 강화키로 했다.

농수산부 당국자는 70년대에는 쌀증산 일변도의 영농 정책을 펴 왔으나 단위수확체고의 한계성 등을 고려 할때 수입 의존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밀·콩·옥수수 등의 자급도 제고를 위해 전작물의 증산 시책 강화가 절실하다고 지적, 보리·밀·콩·옥수수 등에 대한 품종 개량 추진과 아울러 작부체계의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진청은 전작물 신품종육성 계획의 하나로 유망신품종의 밀·보리·17계통을 선발, 농가 실증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밀·콩 4천 3백 84계통에 대해 국제연락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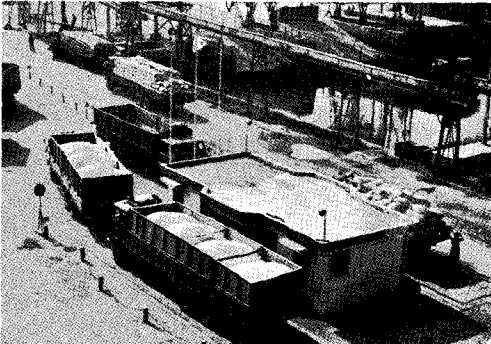
험을 추진하는 한편 신품종 시범단지 9백 10개소를 설치, 밀·콩·옥수수의 신품종 확대 보급을 꾀하고 있다.



△ 농수산부는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작물의 증산계획을 강화키로 했다.

美. 농산물수출 호소

— 대소 금수 불구 작년대비 27%증가 —



△ 미국의 농산물수출은 대소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27%나 증가했다.

80회계 연도(79년 10월~80년 9월) 중 美 농산물수출은 총 4백4억8천1백만 달러로 79회계연도에 이어 사상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美농무성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가을 소련의 흉작, 유럽 북부의 저온, 장마등에 따른 국제적인 농산물 공급 부족이라는 사태를 배경으로 소맥이나 콩등 주요곡물수출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보복조치로 취해진 카터의 대소 곡물금수 조치도 美농산물 수출에 실질적인 타격은 미치지 않았다. 80회계연도의 농산물 수출총액은 79회계연도보다 85억달러가 많은 27%의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품종별 수출실적은 변화 및 숨 켜겨기가 59%나 급증하고 있는것을 비롯, 전 품종이 전년도실적적을 상회 했다.

美國의 농산물 수출은 76년도 이래 줄곧 증대해 왔으며 4백억 달러대에 이른 80년도 실적에 비해 약 78%의 신장세로, 이결과 80년도의 농산물 무역 흑자는 2백 29억달러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대 중공 수출이 면화를 비롯하여 현저히 늘어났기 때문에 79년도의 9억 9천 7백만달러에서 일거에 약 21억달러로 확대되었다.

한편 주요곡물 수출을 보면 수출량이 가장 많은 것은 사료용적립의 7천 1백 20만t으로 전년대비 20%가 증가됐다.

동물성지방 및 육골분의 사료적 가치 세미나 개최

— 미국 우지 협회(NRA) 주최 —

미국 우지협회는 양계와 양돈에 있어서 동물성지방 및 육골분의 사료적 가치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11월 28일(금) 오후 미농업 무역관에서 개최 하였다.

한국 사료협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고려대학교 축산학과 지규만 교수의 육성

돈과 비육돈에 대한 동물성 지방의 급여 효과에 대하여 전북 대학교 축산학과 박홍석 교수의 육골분의 아미노산 함량 및 부로일러 급여 효과에 대한 연구 내용의 발표와 상호의견 교환이 있었다.

돈육값 천 8백 50 원으로 인상

— 10월 200원 인상 후 다시 250원 올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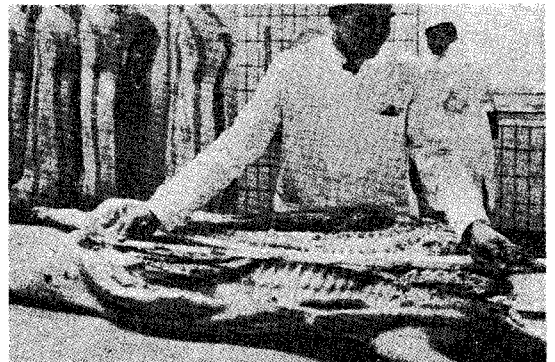
서울시는 돼지고기 값을 현재 6백g당 1천 6백원에서 1천 8백 50원으로 2백 50원을 인상, 11일 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산지의 돼지값이 크게 올라 육류 연동제에 따른 2백 50원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인상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돼지고기값 인상은 지난 7월 부터 적용한 육류가격 연동제 실시 이후 4번째로 인상 조정한 것인데 최고기 값은 3천 6백원 종전가격을 받도록 결정 했다.

시는 지난 10월 16일자로 돈육을 1천 4백원에서 1천 6백원으로 2백원 인상 조정한 후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인상 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정육점에서 판매 이윤이 적다는 이유로 돼지고기 판매를 기피하는가 하면 경락가격 인상을 내세워 1천 8백원에서 1천 9백원

까지 받는 등 사실상 연동제 가격을 위반해 왔는데 시는 이를 인정, 1천 8백 50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 서울시는 돈육값을 250원(600g)을 인상함으로써 연동제실시 이후 4번째로 인상 조정했다.

새 곡물거래법 협정 추진

— 자유중국, 미에 사절단 파견 —

자유중국은 내년 3월 이전에 대규모의 대미구매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인데 특히 5백만t 이상에 달하는 새로운 미·자유중국간 곡물거래 협정 체결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추진중인 미·자유중국간의 5개년 곡물협정의 교역량은 약 5백만t에 달하며 현재의 2백50만톤에 비해 2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자유중국간의 곡물거래협정은 지난 67년 3월 미국의 9개 곡물회사들과 체결되어 있는데 내년 6월에 그 효력이 만료된다.

이 협정에 의하면 자유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매년 최소한 50만t의 콩·밀·옥수수 등을 수입하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현재 자유중국의 대미 구매 곡물은 1백만t 이상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업자들은 이번에 이같은 협정을 통해 매년 최소한 1백만톤 이상, 5년간 5백만t 이상의 교역을 예정하고 있다.

EC, 닭고기공급 과잉현상

- 인구감소로 수요축소 초래 -

구주공동시장(EC)가맹 9개국에서는 남아도는 닭고기와 잠재적인 계란의 과잉공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구주공동시장 가입 9개국은 미국 대두 및 대두박의 최대 수입국으로 특히 지난 10년간 닭숫자의 증가와 함께 닭사료에 필요한 단백질 수요증대에 힘입어, 양계 부문이 최대 수요처가 됨으로써 미국 전체 대두 및 가공제품 수출의 42%를, 대두박 수출의 46%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닭고기 및 계란의 공급과잉 현상을 영국에서 발간되는 Poultry World지는, 1979年度 EC지역 人口의 감소가 닭고기 및 계란의 수요축소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1979년 산란계수는, 1976/77년도 수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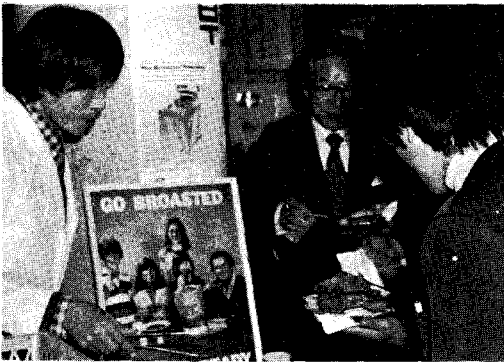
△ EC는 최근 양계산물의 과잉공급이 일고 있다.

5,820만 首로 감소 하였는데 지난 10년간 최고 6,660만 首에 비하면 급격한 감소 추세인 것이다.

그러나 닭고기 생산 및 소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되어 왔고, 총 식용육류에서 닭고기의 비중을 더 높여나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닭고기의 생산 및 소비가 다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가금학회한국지부 80년도 가을세미나 성료

- 계육가공품 시식회도 가져 -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회장: 오세정)는 금년도 가을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안양소재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지난 29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배합사료의 품질개선방안(서울농대 한인규 박사), 계육의 가공이용 소비촉진 방안(KIST이유방박사), 양계장실태 조사보고(위생과 질병 중심으로 생산성조사)(가축위생연구소 박근식과장), 마레병예방에 관하여(가축위생연구소 최병옥 연구관), 뉴캐슬예방접종 프로그램과 접종경로를 중심으로한 검토(영남대 이학철교수)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이날 KIST의 노계육가공품과 한협외 센터키식 닭튀김의 시식회도 겸한바 있다.

생우값 안정위해 우지육 수매비축

— 촉진, 가격상승시 방출예정 —

농수산부는 최근 경기침체등의 영향을 받아 수요가 크게 줄어 생산비를 밀돌고 있는 생우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축산물 도매 시장으로 하여금 지육을 수매 비축키로 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한우 산지가격이 소비 둔화 현상으로 인해 지난 10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을 막기위해 축산 진흥회를 통해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육을 하루평균 30마리씩 수매 비축했다가 가격이 오를때에 다시 방출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농수산부는 산지로부터 출하량이 줄어 전국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등 4대 도시에만 방출하던 비축 돼지고기를 인천, 광주, 수원, 청주등 4대 도시를 추가, 하루 3백마리씩 방출키로 했다



△ 정부는 생우값 안정을 위해 우육을수매 비축키로 했다.

세계곡물비축량 안전수준 밀돌아

— FAO, 80년도 식량농업사정에서 밝혀 —

세계의 식량전망은 세계적 경제태세의 상태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FAO가 밝혔다.

FAO가 발표한 「80년도 식량농업상황」에 관한 보고서는 80년중 곡물증산이 약간 증가 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곡물비축량은 세계 식량 안전에 필요한 수준을 밀돌것이라고 전망하면서 81년의 식량안전 전망의 악화는 심화 될 것으로 밝혔다.

이 보고서는 FAO가 최근 수개월간 내놓은 가장 비관적인 세계식량사정에 관한 평가로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FAO의 전망은 80~81기간말 세계전체의 곡물이 월 재고가 3천 7백만t (15%) 감소, 2억 7백만t 수준까지 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같은 전망은 곡물수출국, 특히 美國의 재고가 크게 감소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FAO의 이 보고서는 80~81기간말 예상되는 곡물비축량이 전세계소비량의 14%에 불과한 것으로서 79~80기간말 17%, 78~79기간말 19%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작물 재해보험법 제정

- 농수산부, 82년부터 부분 실시 -

농수산부는 가뭄·홍수등 기상재해로 발생하는 농산물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내년도에 농작물 재해보험 법령을 제정하고 보험기구전담를 설치, 82년부터 부분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을 실시키로 했다.

농수산부가 입법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에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이 수립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안을 토대로 농작물 보험제도의 기본 정책 수립과 함께 보험 전담 기구를 설치, 시험사업 실시지역을 완료하는 등 준비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다.

농수산부는 82년부터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3~4년간의 시험사업을 실시한 후 여기에서



△ 정부는 농산물의 위험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각종 문제점을 실정에 맞게 보완,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국 수도작농가에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 한다는 것이다.

지방통계 사무소장 직급 조정

- 농수산부, 농수산통계 개선위해 -

농수산부는 농수산 통계조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과대한 생산목표 책정이나 증산과당 경쟁을 지양하는 한편 지방통계 사무소장의 직급을 조정 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농업통계를 바로 잡기 위해 조사의 독립성 보장과 아울러 조사 요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 현재 면당 0.8명 꼴로 배치 되어 있는 것을 2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문제를 총무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컴퓨터 용량의 확대, 지방 터미널 설치, 조사 요원의 기동력 확보 등 통계자료 처리 장비를 보강 할 계획이다.

콩 수매가 25% 인상

- 농가희망량 전량 수매 예정 -

농수산부는 금년산 콩 수매가격을 지난해 보다 25% 인상, 60kg들이 가마당(2등급 기준) 3만2천4백원, 옥수수 15%가 인상된 60kg들이 가마당 1만2천2백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콩은 지난 11일부터, 옥수수는 15일 부터 수매에 착수, 오는 12월 30일까지 사들이게 되는데 콩은 지역별 농가별 제한 없이 농가 희망량 전량을 옥수수는 江原 2만9천t, 京畿 1천1백36만t, 忠北 2천9백64t, 慶北 1천7백10t 등 모두 6만5천t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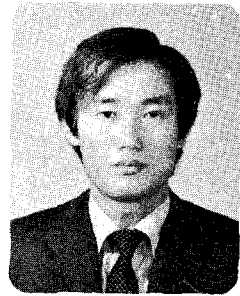
제 21회 전국 농업 기술자 대회 성료

— 본회 전북지부장 신흥종씨 농업생산 기술 부문 본상 수상 —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실천하여 새시대·새역사의 식량증산을 역군으로 복지 농촌 건설에 총화 전진을 위한 제 21회 전국 농업 기술자 대회가 지난 12월 2일 오전 11시 새중문화회관 별관에서 전국의 농업 기술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전국 농업 기술자 협회(총재:류달영)가 주최 하고 농수산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방송 공사가 후원한 동대회는 농민의 정신 혁명, 농업의 기술 혁명, 농촌의 생활혁명 등을 완수하여 농민의 총화단결과 증산의욕을 고취 스스로의 사명을 일깨워 농업증산과 농가소득 증대로 새 역사 발전에 기여 할 목적으로 개최 되었다.

이날 정종택 농수산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산에 전념하는 전국의 농민들의 치하하고 비료값 현실



(신흥종 본회 전북지부장)

화에 대한 배경 설명과 함께 농촌의 현안 문제를 발표 했다.

동대회에서는 농업기술상 및 농산물품질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농업계에서 유일한 보상제도로 권위를 인정 받고 있는 농업 기술자상 농업생산 기술부문 본상에 입상한 본회 전북 지부장 신흥종(고창 양계 대표)씨가 수상을 받았다.

곡물도입, 민간기업 참여 바람직

— 전경련, 식품공업 외자유치 부적절 지적 —

전경련은 부족양곡의 도입은 비싼 쌀보다 는 값이 싼 양곡으로 전환하여 이에 따른 양 곡수급계획을 다시 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또 전경련은 식품공업에 대한 1백% 외자유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국내식품공업의 국제경쟁력 실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출을 허용하는 것도 소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는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해 곡물수입할때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베이스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는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해 보리를 많이 심고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정부의 강력한 지원아래 보리생산을 대폭 늘릴 것도 주장했다.

유지(油脂) 수입 의존도 점차 높아져

— 가격 경쟁 어려워 자원활용 부진 —

우리나라의 연간 식용유 소비량은 19만 7천 4백t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87.5%에 해당하는 17만 2천 8백t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부가 조사한 국내 식용유 생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생산량은 유채유 9천 4백t, 미당유 1만 5천 2백t 등 2만 4천 6백t에 불과했으며 수입 물량은 대두유(국내가공) 5만 9천 4백t, 우지 6만 9천 8백t, 면실유 등 기타 3만 5천 8백t으로 모두 17만 2천 8백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채·쌀겨 등 국내유지 자원이 많은 데도 생산 실적이 부진한 반면 수입의존도가 이같이 높은 것은 사료원료로서의 대두수입 물량이 해마다 늘어 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두유와 미당유·유채유 간의 가격 경쟁이 어려워 착유업자들이 국산유지 생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대두유 가격은 t당 84만 3천원(일본 56만 4천원)인데 비해 미당유는 t당 52만 8천원(일본 55만 6천원)이다.



△ 식용유등이 외국과의 가격경쟁에서 떨어져 수입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 대농민 상담업무 강화

— 새 농사기술도 보급 —

농촌 진흥청은 농업기술에 관한 농민과 청소년 회원들의 궁금한 농업기술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전달하기 위해 농민 상담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새 기술 보급을 위해 지금까지 분야별로 실시하던 농민 상담업무

체제를 개선하여 중앙과 도원에서는 농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농민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시·군 농촌지도소 및 지소에서도 농민 상담서(카드)에 의한 상담 업무를 강화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월말 까지 본청과 13개 산하 시험장 연구소에는 농민·학생 등 1만 8천 5백여명의 방문을 받고 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현장 등을 직접 둘러 보게 했다.

미국, 곡물수출 규제할지도

— 미농무성, 수확줄어 시장안정도모 —

미국은 금년도 곡물수확 감소 및 향후 수년간의 수확량 감소에 상에 따라 곡물수출을 규제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미농무성 소속 경제학자가 밝혔다.

농무성의 농업전망년례회의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에서 국제담당 보좌관인 테일·해터웨이씨는 美國은 세계곡물 수확 감소에 따른 예기치 못한 극심한 곡물가격 변동으로 혼란이 일고있는 미곡물 시장의 안정을 도모키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 할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금년에는 美國·캐나다·아르헨티나·호주등 세계주요곡물수출국가 들의 가뭄으로 곡물수확이 급격히 줄어들어 세계 전체의 곡물재고가 27%나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곡물수입국들의 대미 곡물의존도는 30년전의 2%에서 85년경에는 15%로 확대 될 것이라고 미 농무성 관계자는 내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민후계자 육성 기금법 통과

— 입법회의 본회의, 농수산부 장관이 운용, 관리 —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농민후계자육성 기금법을 통과시켰다.

입법회의 본회의에서 확정된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법은 농촌청소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재산, 정부의 출연금, 정부투자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 기금은 농수산부장관이 운용, 관리하며 ① 영농정책지원사업 ② 영어정책지원사업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한 사업등을 위해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법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수산부장관소속아래 농어민 후계자 육성기금운용 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날 통과에 따라 11월 15일 부

터 시행되며 지난 6월 17일 부터 시행일까지 국가에 기부 또는 증여된 재산중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재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금에 귀속된다.



△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농촌청소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농민후계자 육성기금법을 통과시켰다.

대성미생물 양돈세미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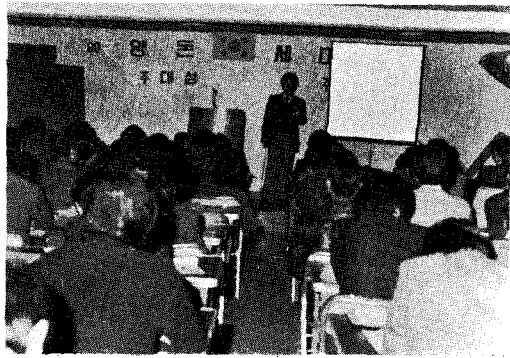
— 영양과 비타민에 대해 집중 연구 —

(주)대성미생물연구소(대표: 조성용)가 주최하는 양돈세미나가 지난 19일(수) 오전 11시 부터 여성단체 협의회 2층 회의실에서 학계 관련 업계 인사 80여명이 참석 성대히 개최 되었다.

양돈의 영양과 비타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된 본 세미나에는 세계적인 비타민제 메이커 Roche사의 가축영양학 전문가 C. H. Keh 씨가 초빙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가축위생 연구소의 권영방 연구관, 경상 대학의 김봉환 박사, KIST의 이남형 박사 등이 초빙 되었다.

비타민K와 바이오친 결핍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을 나눈 이날 세미나의 주제와 연사는 다음과 같다.

○ 돼지질병과 위생.....김봉환 박사(경상대 농대)



○ 돼지의 영양과 비타민K.....이남형 박사(KIST 동물사료 연구실)

○ 바이오친과 동물의 영양.....G. H. Keh(스위스 Roche사 가금영양 담당)

○ 양돈 산업에 있어서 영양과 바이오친..... 권영방 연구관(가축위생 연구소 병리연구실)

쌀겨기름 생산 현대화

— 농수산부, 콩기름 대체 유도 —

농수산부는 쌀겨기름 생산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매년 60여만t에 달하는 유지원료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기술 부족으로 많은 원료를 사장하고 있음을 감안, 현재 62개 영세 업체를 원료권 중심으로 지역 실정에 맞추어 통제합하고 생산 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해 원유 추출시설과 정제시설을 분리, 83년까지 연차적으로 착유 공장을 대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IBRD 차관 기금에서 96억원을 지원하고 정부양곡도 도정공장에 전조기를 설치한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약 2만5천t의 콩기름을 대체하게 된다.

돈육, 고추, 마늘, 양파 수입억제

— 농민의 증산의욕 고취위해 —

농수산부는 돈육, 고추, 마늘, 양파등 농축산물에 대해선 수입에 차질이 빚어 지더라도 가능한한 수입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이는 농민의 증산의욕을 높이고 대량수입에 따른 부패·변질·가격폭락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이들 수입억제 대상 품목에 대한 수입 추천을 제한하고 수입 자유화 품목의 경우엔 관세률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축산물 생산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예정이다.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종계업 등록기준 강화 —

정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개정 했다.

농수산부령 제 801호(80. 10. 14)에 의거 개정된 내용 중 양계 부분의 변경 개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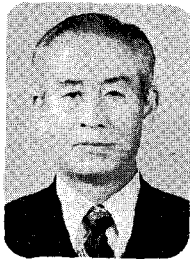
종계업 등록기준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종계사의 지붕은 견고한 내구성 자재를 사용할 것.

6. 종계사육 일지를 비치하여 종계사육 상황을 기록·유지 할 것.

업계 단신

○ 유윤수(축산단체 연합회 회장) : 서울우유 협동조합장으로 취임.



(유윤수)



(이재근)

○ 한국가축번식 연구회(회장: 이재근) : 198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 발표회를 오는 12월 13일(토) 오후 2시부터 중앙대학교 학생회관 3층에서 개최 예정.

○ 부산 한미 병아리 감별학원 개원(원장: 민경두) : 부산시 동구 범일동 382번지에 한미 병아리 감별학원을 개설
원장: 민경두 ☎ (66) 5200

○ 삼양유지사료<주>(대표: 이병욱)
: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질병사양관계 등이 수록된 슬라이드를 제작. 이용을 희망하는 양축가와 계우회는 가까운 각 지역 영업소나 본사로 연락하면 출장 상영을 해 준다.

☎ (서울영업소) (75) 8951~8, (원주영업소) (2) 0231~4, (천안영업소) (2) 3930

○ 서울시 도시미관지역 내 식육판매업소 신규허가: 서울시는 강남구 신정동의 14개 지역의 도시미관지역에 대한 신규 식육판매업소 허가를 구청장 판단하에 미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토록 지시.

○ 녹십자 수의약품<주> 신축공장 기공: 백신 메이커인 동사는 지난 11월 15일(토) 새로운 신규공장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 신축공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평 611평으로 내년초에 준공 예정이다. 동사는 새로운 건물이 완성되면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수출 증대에도 이바지 할 예정이다.

○ 조성용(대성미생물<주> 대표) : 미국의 선진 동물약품업체 시찰을 위해 지난 11월 중순 출국하여 12월 5일 귀국.

○ **한국 성형제지 (대표 : 이종선)** : 위생적인 종이 난좌 생산 업체인 동사는 선물용 15개들이 종이 난좌를 신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또 동사는 특란용 난좌를 새로이 개발 특란·종란의 파란 방지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성남시 고동우체국) 77

○ **한국 크로르 마요네즈 등 제품생산 개시** : 서울 미원의 계열사인 한국 크노르(합작회사)가 12월 부터 마요네즈, 스프 등 각종 조미가공 식품을 생산 한다. 동사는 마요네즈 원료인 계란을 직접 국내에서 조달, 계란소비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 **경희동물약품상사 개설 (대표 : 송성섭)** : 김포·강화지구 양축가 서비스를 위해 가축약품, 대용유, 낙농기구, 단미사료등을 취급하는 동물약품 도매상을 개설.

주소 : 서울 강서구 목동 116-5(인공폭포 옆)

☎ (686) 3719, 야간 (62) 4632

○ **축산진흥회 사무실 이전** : 축산진흥회(회장 : 김일로)가 11월 15일부로 사무실을 이전 했다. 새로운 사무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동아일보사 옆 잠사회관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6 (잠사회관내) ☎ (783) 0050~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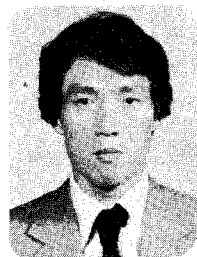
○ **한일농원 (대표 : 차두홍)** : 영업부차장에 김영훈(전 양지가축)씨를 기용하고 총무 과장 대리에 성낙희(기획실 근무)씨를 승진 발령하는 한편 영업부에 박우탁(영남대 축산과 졸업예정)씨를 특채.

○ **한국 바이엘화학 (대표 : 김길원)** : 개발부에 권태식(전 신촌사료)씨를 기용.

○ **제일제당<주>** : 사료판매 관리 과장에 박동희(전 동사 사료 기술과)씨를 승진 발령하고 사료판매과에곽수곤(전 과학사료), 김성제(서울농대 졸, 자영), 이재도(전 한국화이자), 김재준(전대 축산과 졸)씨를 사료생산과에 김형기(충북대 농대 졸)씨를 각각 특채.



(곽명섭)



(곽수곤)

○ **곽병섭박사(계명대 조교수)**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원장 : 김보현) 수석 연구원으로 임명. 농업 유통 연구실에서 유통정책 연구를 담당.

○ **월간종합축산(대표 : 조성용)** : 편집부에 이태평(전 내외축산)기자를 특채

○ **제일사료<주> (대표 : 오관영)** : 서울 직매소장에 본사 채민석 과장을, 전주 직매소장에 군산공장 이효림 과장을 대구 직매소장에 서울 직매소 조우영 주임을, 본사 영업부에 서울 직매소장 박지현 주임을 각각 전보발령하고 대전 본사 영업 지배인에 민태혁(전 은성사료)씨를 본사 영업부에 우순조, 정희완(전 삼화물산)씨를 기용.